

대구주보

예수 성탄 대축일 | 2014. 12. 25. (나해) 제1923호



지좌성당 구유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거룩한 가난의 기쁨

교형자매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구세주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세상에 오신 것을 경축하는 이때에,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모두 주님께 사랑의 큰 선물을 받아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라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이 땅에 새롭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 스스로를 죄인의 지위에까지 낮추시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1,11)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2코린 8,9 참조)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가 바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2014년은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한해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연달아 일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한편,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우리나라를 사목방문하시어 윤지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를 복자로 선포하시고 슬픔에 지쳐 있는 한국 사회에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르시는 짧은 기간 동안 소탈하고 겸손하면서도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결의가 서 있는 참 목자의 면모를 보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는 싸구려 시계를 차고 낡은 구두를 신은 사람, 오래 되고 비좁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병 걸린 이들과 노숙자들을 거리낌 없이 안아주는 사람, 당신 말씀대로 “양 냄새 나는 목자”이셨습니다.

대림 첫 주일인 지난 11월 30일에 저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를 새로운 한 해를 위한 교

구의 사목지표로 정하고 모든 교우들이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역량을 모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이웃을 통계 수치나 사회 문제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들”(마태 25,40)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당신을 대하듯 하라 하셨으니,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소외된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아뵙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룩한 가난에 동참하려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내 것’을 꼭 움켜쥐고 자신보다 형편이 못한 형제를 생각할 줄 모른다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다 넘겨주신 주님께 너무나 송구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은 어쩌면 ‘내 한 몸 돌보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의 걱정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의 제자 되는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에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본래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탄 선물의 원조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형제를 위해 가난하게 되는 기쁨을 가르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 조 환길 타대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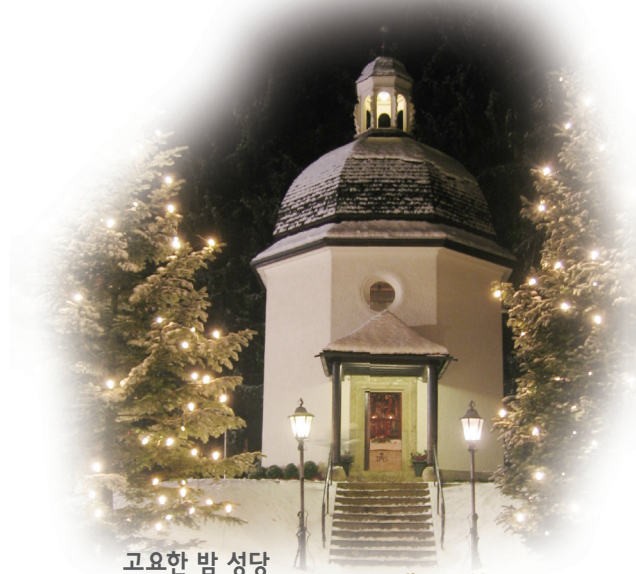


1818년 오스트리아의 음악도시 잘츠부르크에서 약 20km 떨어진 오베른도르프(Oberndorf)라는 작은 마을의 성 니콜라우스 성당 주임신부님이었던 요제프 모어(Joseph Mohr) 신부님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남겨놓고 고장난 오르간을 열심히 고치고 계셨습니다. 성탄 미사도 드려야 하고 연극 발표회도 해야 하는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골마을이라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 오르간을 구입할 형편도 못되어 며칠째 오르간을 뜯어서 고쳐 보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신부님은 성당의 오르간 반주자이자 그 마을의 초등학교 음악교사인 프란츠 그루버(Frantz Gruber)를 찾아가 오르간이 수리가 안 되니 성탄 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노래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그루버도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을 했고, 이 제안은 곧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모어 신부님은 그 동안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느꼈던 감정을 토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Stille Nacht Heilige Nacht)”으로 시작되는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노랫말을 받고 난 그루버는 고장난 오르간 대신 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성탄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는 가사에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곡을 만든 당일 12월 24일 성탄 전야미사에서 신부님은 기타를 치면서 테너를 맡았고, 그루버 선생님은 베이스를 맡았으며, 성가대가 후렴을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1825년 오르간 제작자인 칼 마우라커(Carl Mauracher)가 와서 오르간을 수리하기까지는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르간을 수리하러 온 마우라커는 오르간이 있는 2층에서 가사와 곡이 적혀 있는 「고요한 밤」의 악보를 발견하고는 그 악보를 베껴서 스트라서(Strasser) 어린이 합창단에게 주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1937년 8월 15일 성 니콜라우스 성당은 「고요한 밤」의 노래를 만든 모어 신부님과 그루버를 기념하기 위해 「고요한 밤 성당(Stille Nacht Kapelle)」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약 140여 개의 언어, 139개의 버전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성탄절에 가장 즐겨 부르는 「고요한 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 프랑스군의 크리스마스 휴전 때 불렸으며 2011년 3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필독**



고요한 밤 성당

성탄시기



성탄 시기는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것을 경축하고 감사드리는 시기입니다. 성탄 시기는 성탄 전야미사로부터 시작하여 성탄 팔부(성탄에 이어 팔일 간 지내는 축제라는 뜻으로, 성탄 당일로부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까지)와 주님 공현 대축일을 거쳐 주님 세례 축일까지 이어집니다. 성탄시기의 전례색은 기쁨과 영광을 상징하는 흰색입니다. 성탄시기에는 대림시기 동안 중단하였던 대영광송을 다시 미사 중에 노래하고, 미사 독서는 주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중의 모습을 취하시고” (필리 2,7)

성탄 시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지내면서 신자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가난한 이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살피는 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과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의무축일로서, 주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가 미사성제에 참례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시기와 마찬가지로 성탄시기에도 모든 신자들은 성체를 배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탄 풍습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이 줄어든 것으로, X-Mass의 첫 글자는 영어 알파벳의 ‘엑스’가 아니고 그리스말로 ‘그리스도(Χριστός)’의 첫 글자인 ‘키’입니다. 우리가 성탄시기에 가장 흔히 보는 장식은 크리스마스트리이지만, 이 장식은 이교인들의 동지(冬至) 축제에서 온 것으로 본래 천주교의 오래된 성탄 풍습은 바로 크리스마스카드입니다. 또한 주님 공현 대축일에는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성탄 노래를 불러 교우들의 가정에 축복을 비는 풍습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로 널리 알려진 복스러운 수염의 할아버지는 원래 12월 9일에 축일을 지내는 성 니콜라오 주교님인데, 주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특히 불쌍한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음식이나 의복, 돈 등을 나누어주시곤 하셨기 때문에 이 풍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필리**

성탄시기의 전례



예수 성탄 대축일의 미사

예수 성탄 대축일에는 밤미사와 새벽미사, 낮미사, 이렇게 세 번 미사를 드립니다. 각 미사마다 고유한 기도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로마교구에서 성탄 미사를 드리던 풍습에서 유래합니다. 로마의 주교인 교황님은 원래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성탄 대축일 낮미사 한 번만 거행했었는데, 5세기에 성 마리아 대성전에 베들레헴 성탄 동굴 모양의 경당이 세워지면서 성 마리아 대성전에서 밤미사도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유에 아기 예수를 안치하는 구유 예절은 밤미사 전에 합니다. 또 로마 시내에는 성녀 아나스타시아에게 봉헌된 성당이 있었는데 12월 25일이 이 성녀의 축일이어서 교황님은 성 마리아 대성전에서 밤미사를 거행한 후 아나스타시아 성당으로 가서 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미사가 성탄 새벽미사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탄 8일 축제

성탄을 8일 축제로 지낸다는 것은 구세주 성탄의 기쁨과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에는 대축일과 축일만 허용되는데 주요한 축일로는 첫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 축일(12월 26일), 사도이자 복음사가인 성 요한 축일(12월 27일),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한 헤로데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조리 살해한 것을 기념하는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12월 28일)이 있습니다. 또 성탄 8일 축제 기간에 주일이 오면 그날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냅니다. 성탄 8

일 축제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끝납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왕(또는 박사 ; 발타살, 가스발, 멜키올)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로 1월 6일에 지냅니다(한국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의미에서 공현 대축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월 6일은 원래 동방 교회의 성탄 대축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와 아라비아 등지에서는 1월 6일을 동지로 지내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세례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점에서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축일입니다. 이 축일로 성탄시기가 끝이 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 미사를 마치면 성탄 구유와 장식을 치웁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에 지내지만 주님 공현 대축일이 1월 7일이나 8일인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월요일)에 지냅니다. **예외**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예수 성탄 대축일

▲ 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
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 복음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모두 모두 기쁜 성탄되시길

박성규 엘리자오



성소 | 피정

분도 명상의 집 12월 시편 영성 피정

기간: 12.30(화) 16:00~1.1(목) 13:00
지도: 정학근(모세) 신부, 피정비: 12만 원
신청: (051)582-4573 / (010)6650-4574

새해맞이 송구영신 피정

기간: 12.31(수)~1.1(목)
장소: 성심교육관,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명자 카타리나, (010)4515-1114

제27차 신구약 성경통독 피정

기간: 1.3(토)~11(일), 한글, 영어
문의: 오순절평화의수녀회 루하피정센터
(055)351-2286 / (010)3578-3572

교육 | 모집

2015년 맨발 가르멜 재속회원 모집

모집기간: 12.31(수)까지
첫째주 주일팀: (010)2686-3282
첫째주 월요일팀: (010)5590-2473
넷째주 주일팀: (010)2518-4008
넷째주 월요일팀: (010)8594-2655

2015년도 보육교사양성과정 신입생 모집

특별과정(소양)자격취득가능(1년 과정)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850-3366 / 3377

대구대교구 가톨릭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규단원 모집

각파트 기악전공자 0명(학부 재학생 가능)
접수마감: 12.31(수)
문의: (010)8996-8675
홈페이지: www.catholicphil.org

2015학년도 전기 추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5(월)~1.14(수)
분야: 17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가톨릭상지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
의 가톨릭 전문대학
정시1차 모집: 12.19(금)~1.2(금)
모집요강은 대학 입시홈페이지 참조
http://ipsi.csj.ac.kr
문의: 교무처, (054)851-3011, 14

5차원 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36차)

기간: 12.29~31 / 1.26~28 / 2.26~28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주관: 살레시오수녀회
대상: 초·중·고·대생 / 선착순: 30명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02)832-2654
참가비: 28만 원, 문의: (010)3883-7004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기간: 1.8(목)~10(토) 2박 3일
대상: 중1~2학년
접수: 12.22(월)~24(수) 선착순
양업고 홈페이지(www.yangeob.hs.kr)
문의: (043)260-5076

대전가톨릭대학교 혼인과 가정 학생 모집

기간: 2.6(금) 17:00까지
서류: 원서, 추천서 / 접수비: 1만 원
전형방법: 면접 2.9(월) 10:00
모집인원: 일반전형과 청강 00명
제출처: 대전가톨릭대학교 30 평생교육원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등
각종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제주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3대를 이어온 경옥고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옥고 제품
◎ 경옥고(젤류, 한, 차, 팩, 삼품 등)
◎ 공진단 ◎ 홍삼제품
양대석(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의원
원장, 범리전문의 이종구(마티아)
전 대구의료원 원장
범어네거리 4번 출구
Tel. (053)755-7775
www.ldkclinic.com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동일주차장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환.목
www.misoindental.com 야간진료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사랑의 청탁을 받습니다
광천 이조맛김
김 · 건어물 · 젓갈류 판매
성전건립기금 마련 및 바자회
성모회 · 자모회 등 각종 단체 기념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

행사 | 모임

2015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 정기총회

일시: 1.3(토) 15: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대상: 각 본당 학장 및 실무자
신청마감: 2014.12.28(공문 참조)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6

바뇌성모발현 82주년 기념 미사

일시: 1.15(목) 14:00, 삼덕성당
문의: (010)3173-5538

교육 | 모집

2015 대구 선택 디퍼(심화과정)

기간: 1.3(토)~4(일), 꾸르실로교육관
대상: 대구선택주말 수료자 40명
문의: 홍대식 대건안드레아
(010)4724-2427

3박 4일 꾸르실로 실시

남성 제250차: 1.8(목)~11(일)
남성 제251차: 1.22(목)~25(일)
여성 제237차: 1.29(목)~2.1(일)
실버 제3차: 3.12(목)~15(일)
문의: 꾸르실로, 254-4671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겨울캠프

기간: 1.5(월)~8(목) 3박 4일
대상: 초5~6, 중1~2
접수: 12.14(일)부터 선착순 마감

문의: (054)338-0530

<http://www.sanjayeon.ms.kr>

대안학교 교육을 위한 간담회

일시: 1.11(일) 14:00
장소: 단내 성가정 성지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초6~고2 부모, 자녀
문의: (031)633-9531

요셉 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우리의 건강이 보인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 토 14:00~16:00, 가톨릭문화관
문의: 476-7774 / (010)3817-5255
<http://www.footfather.com>

카리타스무지개사업단 수강생 모집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외국어교실
과정: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POP기초(무료)
문의: 621-2026

노들담오르프 겨울 단기지도자 양성과정

기간: 1.15(목)~17(토) 9:00~18:00
장소: 상인동 가톨릭 소화어린이집 강당
문의: (010)7392-1227 / (010)5914-3706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법, 가곡교실, 키보드, 심리상담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문의: (070)4266-0047

채용 | 안내

큰교개성당 사무장 채용

접수: 1.18(일)까지
구비서류: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
면접: 2.1(일)
문의: 959-1223

백합식품 직원 채용

수녀원 매주공장 남자직원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운전가능
메일: spcfood@hanmail.net
문의: 경산자인 백합식품공장, 857-2037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
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은경(수산나), 이지숙
문의: 253-9550

2015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 일자: 8월 9일, 16일, 23일
문의: 문화홍보실,
250-3048~9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 **교육생** ▶ **취업률**
▶ **연속합격률**
▶ **요양원 · 방문요양 부설운영**
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대구 053)791-7677
경산 053)813-7343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수술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053)626-8881~5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들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고 입구

국가자격 장례 지도사
국비지원계좌제 및 일반반 모집
▶ 취업준비생 ▶ 퇴직준비하시는 분
▶ 창업하실분 ▶ 남녀, 나이, 학력 제한없음
※ **무시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경장례지도사교육원
(경상북도 지정 제4호)
☎ 053)813-7006

비염 · 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코비한의원
대구수성점
대표원장 이 판 제(투가)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겨울방학 특집 가족캠프”
일본 성지순례
문화탐방
나가사키, 오텐, 구마모토, 야소 (4일)
※ 출발일 - 1월 5일, 28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홍 미 회(안젤라)